

人
스토리
마흔두 번째
김순자

매일 새로 피는 꽃에 대하여

말하기·그리기: 김순자 듣기·쓰기: 박리나·서지석

손주가 나를 두고
천사 같다고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손주의 얼굴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들어있었다.
이제는 그 얼굴들을 떠올려도 슬프지 않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천권도서관 人 스토리

천권도서관人스토리

‘천권도서관人스토리’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人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과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 잡아 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人스토리’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人스토리’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人스토리 마흔두 번째 김순자

매일 새로 피는 꽃에 대하여

말하기·그리기: 김순자 듣기·쓰기: 박리나·서지석

김순자

천권도서관人스토리

가족, 내가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



